

축제로 꽃피운 '다선일여'

초의문화제 대흥사 일원서 열려 육법공양 및 전국다도회 들차회 행사도

다성(茶聖) 초의선사 유지를 선양하기 위해 마련된 제14회 초의문화제가 지난 10월 29~30일 양일간 해남 대흥사(주지 몽산) 일원에서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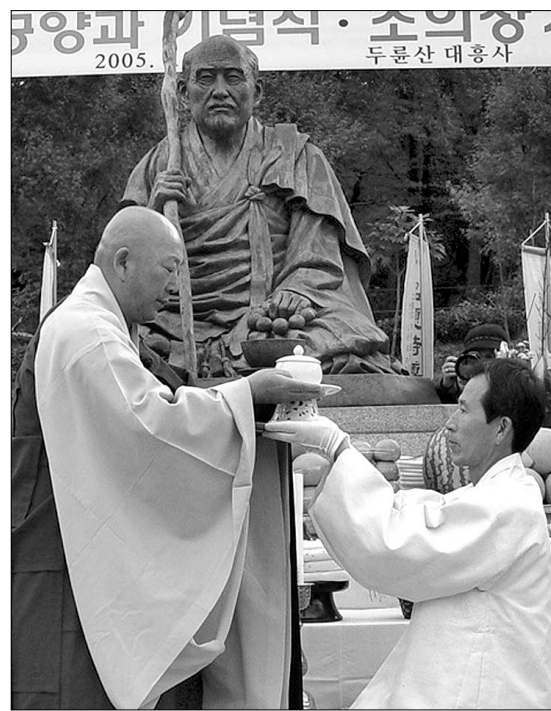
첫날 초의 문화제를 알리는 육법공양에서 몽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전국의 차문화 단체가 함께 모여 초의선사의 뜻을 계승하고 다양한 차문화 행사를 널리 보급하는데 더욱 매진하자"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초의문화제 집행위원회는 제14대 초의상 수상자로 선정한 하승환 보성군수에게 상패와 상금을 전달했다.

이날 기념식에 앞서 남전다회 회원과 다인들은 일지암에서 초의선사 열반 139주년 추모제를 봉행했다. 동산불교대학 다도반 학인들도 전국에서 모인 다인 300여명과 함께 초의동상 앞에서 육법공양의 의식을 갖고 초의선사의 다선일여(茶禪一如) 사상을 기렸다.

이번 초의문화제에서는 부도전 조사다례, 차인 천도 다례제를 비롯해 여인 스님과 함께하는 차담선담, 어린이 차문화교실, 차음식 한마당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렸으며 전국에서 모인 10여개 다도회는 경내 곳곳에서 들차회를 열고 무료시음 행사를 가졌다

또한 대흥사는 초의문화제 일환으로 다구유물 2000년 전시회(11월 15일 까지) 문수전을 개최하고 있다.



대흥사 주지 몽산 스님이 초의선사전에 차를 올리고 있다.

초의상 수상한 하승환 보성군수

상금 전액 차발전기금 '채척'

"이 상은 제가 받는 다기보다 다성(茶聖) 초의선사가 우리차를 대중화하는데 힘써온 보성군민을 격려하는 상으로 군민 모두와 함께 받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10월 29일 해남 대흥사에서 열린 제14회 초의문화제에서 초의상을 수상하고 상금 300만원 전액을 초의선사 정신계승 사업을 위해 내놓은 하승환 보성군수(사진)는 수상 소감을 통해 "우리가 전국 생산량 1위의 보성 군민이 함께 받아야 할 상이다"며 수상의 기쁨을 군민에게 돌렸다.

이날 하 군수는 다량제 개최, 녹차 생산기반 확충, 중국과 미국에 녹차 수출로 우리차 세계화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초의상을 수상했다.

1998년부터 현재까지 3기에 걸쳐 보성군수를 역임하고 있는 하 군수는 "초의선사의 뜻을 받들어 우리차 문화와 차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준엽 기자



지금, 우리 삶에서는...

시흥 혜진선원

생활불교가 포교 키워드



혜진선원은 스님과 신도들이 함께 사찰 발전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포교활동을 벌이고 있다. 주지 승현 스님과 발전위원들이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

대부분의 수도권 신도들이 그렇듯 시흥은 아직도 불교 불모지다. 실질적인 생활불교를 하는 사람이 10여명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교회는 1000개 이상이다. 거리에서 포교하는 것은 아직도 쉽지 않은 일이다. 일부 이웃종교 극성 신도들은 부처님오신날 제등행렬에 물을 뿌리거나 거리에 걸터놓은 연등을 잘라 버리기까지 한다.

이런 가운데서도 적극적인 도심포교로 불법(佛法)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바로 혜진선원(주지 승현)이다. 1990년 10월 14일 '원력' 하나로 시작

등·거사회 법회는 각각 50명 이상의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매주 진행되고 있다. 또한 올해 12기를 맞은 불교 대학과 시흥시 각종행사서 솜씨를 뽐내고 있는 합창단원들의 자원봉사 활동도 활발하다. 불교대학은 시흥시 내 사찰 중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활동과 함께 혜진선원에는 주목할 것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스님과 신도들이 함께 참여한 혜진선원 발전위원회다. 혜진선원 주지 승현 스님과 각 수행단체 대표자들은 항상 머리를 맞대고 모든 중무를 처리하

이웃종교·시민 함께하는 행사 통해 지역화합 스님·신도로 이뤄진 발전위 모든 중무처리

된 혜진선원의 도심포교는 어느새 500여 신도들의 공동체로 발전했다. 혜진선원이 진행하고 있는 포교의 핵심 키워드는 '생활불교'. 도시민들이 불교를 쉽게 접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혜진선원은 불교행사를 '비불교적'으로 진행한다. 연등축제는 개신교, 천주교 등의 이웃종교인들도 참여하며, 시흥시민을 위한 합창단 공연에는 불교음악을 비롯한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이 연주된다. 또 동짓날에는 혜진선원 신도들이 준비한 팔죽을 시민들이 함께 나눠먹고 있다.

이와 같이 대외활동을 활발히 하고 나서 생활불교를 등한시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초하루·보름법회와 같은 기본 활동 외에도 어린이·중고

교 있다. 혜진선원 박현담 기획처장은 "대부분의 중무는 신도들의 자원봉사로 이뤄지고 있다"며 "큰 행사 역시 발전위원회 논의를 거쳐 진행된다"고 귀뜸한다. 박 기획처장 역시 자원봉사로 중무일을 보고 있다.

승현 스님은 "처음 포교를 시작할 때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전반적인 상황이 나아졌다"며 "어린이·청소년 포교를 위한 공부방을 개설해 지역민들과 함께 하고 싶다"고 작은 바람을 털어놨다. 불자가 있는 곳은 어디라도 달려간다는 혜진선원. 그래서 시흥불교의 앞날이 어둡지 않은 것이다.(031)313-3326

유철주 기자

혜은사·청원군 함께 경로잔치 열어



혜은사 주지 덕산 스님이 지용준 위원장으로부터 공로패를 받고 있다.

사찰과 지역 시민단체가 함께 경로잔치를 열어 화제다. 청주 혜은사(주지 덕산)와 청원군 남일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지용준)는 10월 29일 공군사관학교 잔디광장에서 '제3회 화합의 경로잔치'를 열었다.

2000여명의 지역 어르신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 덕산 스님은 "더 많은 어르신들을 모셔야 하는데 죄송하다"며 "앞으로는 더 좋은 곳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겠다"고 인사했다.

남일면 주민자치위 지용준 위원장도 "이제는 명실상부한 주민자치시대"라며 "어려 어르신과 스님들의 가르침에 따라 더욱 발전하는 남일면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원-혜철 대전 충북지사장

나눔으로 청소년들에 희망을 조계사, 장학금마련 바자회

조계사 신도회(회장 대각심)는 '청소년 희망의 장학금' 마련을 위한 작은 가게를 11월 2일부터 4일까지 조계사 백송 앞에서 개최했다.

이와 함께 신도회는 동침기에 목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는 '자비의 선물' 나눔 행사를 12월 31일 까지 진행 한다. 이번 행사는 11월 12일과 12월 27일에 걸쳐 진행되며, '쪽방생활자, 목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우' 등을 대상으로 자비의 쌀, 김치, 생필품을 전달할 계획이다.

조계사 신도회는 이를 위해 경내에 자비의 선물 모금함을 설치했으며, 온라인 계좌를 통한 모금활동도 지속적으로 벌인다. 계좌번호 : 농협 053-01-252363, (02)732-2183

조용수 기자

전주 '참좋은우리절' 상량식 내년 부처님오신날 낙성 예정

전주 참좋은우리절(주지 회일)은 지난 10월 30일 삼천동 법당 신축현장에서 상량식을 봉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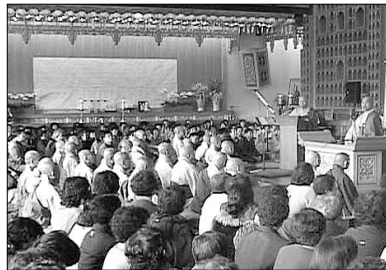
이날 사부대중 500여명과 함께 상량식을 봉행한 회일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새로 건립하는 도량은 중생과 함께하는 전법도량으로 기도와 교육, 포교에 힘써 도심포교의 새로운 지평을 세우는데 다함께 노력하

자"고 말했다.

4년전 전주역 앞 상가건물에서 도심포교당으로 문을 연 참좋은우리절은 2000여평 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600평 규모이다. 낙성은 내년 부처님 오신날이다. (063)245-8027

이준엽 기자

도심포교당 서울 흥원사 개원



서울 강서구 도심포교를 위해 설립된 흥원사(주지 성의)가 10월 28일 대웅전 낙성법회를 봉행했다(사진). 경로잔치와 축하음악회, 낙성기념 영산재 및 조상천도기도회향 등으로 진행된 이날 낙성법회에서 흥원사 회주 동주 스님은 "서울 서부권의 중심도량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근본불교 관련한 국제학술회의를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흥원사 낙성법회에는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 광덕사 회주 해인, 해인사 율주 종진, 통도사 율주 해남, 동국대 교수 법산 스님과 흥원사 가족법회 문성환 회장과 신도 등 1000여 명이 동참했다.

유철주 기자

도갑사 관세음32응신도 집중 고찰

11일 한국종교사학회 국제학술대회서

한국종교사학회(회장 양은웅)는 '관세음보살 32응신도의 예술세계'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11월 11일 10시 전남 영암 영암문화원에서 개최한다.

월출산 도갑사 관세음보살 32응신도 모사제작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는 이원복 국립광주박물관장의 '관세음보살32응신도에 나타난 산수화 양식', 김승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

의 '관세음보살32응신도의 불교회화사적 의의', 우메야마 히데유키(梅山秀幸) 일본 모모야마가쿠인대학 교수의 '저주불로 본 관세음보살32응신도' 등의 논문이 발표된다.

도갑사 관세음보살 32응신도는 조선 인조의 명복을 기원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 일본 교토의 정토종 치운인(知恩院)에 소장돼 있다.

박익순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제32대 총무원장 지관 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 9교구

은 적 사

주 지 虛 韻

신도회장 하 보타월 합창단장 권 정행성
봉사단장 문 청량심 문서수법회회장 최 선해심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 3동 1572 전화 053)653-1572, 9179

은적사 부설 룸비니유치원

원 장 조 대선행

외 교직원 일동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 9동 627-5 전화 053)621-1003, 653-9269

대한불교 조계종 제 15교구 본사

통 도 사

방 장 야부 초우

주 지 이산 현문 전 계 사 중산 해남
부 주 지 서원 태봉 선 원 장 천진 보탑
박물관장 범하 명정 강 주 혜엄 우진

총무국장 문 성 기획국장 오 심
교무국장 보 화 재무국장 지 수
사회국장 명 현 재무국장 지 수
호법국장 원 진 포교국장 영 랑

영축총림대중일동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83번지 전화 055)382-7182 / 팩스 055)382-7196